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8/1℃ 목포 -5/2℃ 여수 -6/2℃

단기 4343년 (음력 11월 30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74호 1판 2010년 1월 14일 목요일

전남 전체 경지면적 45%

유기농 단지로 만든다

道 5개년 계획 발표…2014년까지 적극 육성

친환경농업의 메카인 전남이 유기농산물 생산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농업 메카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전남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 유기농 생태 중심지'로의 도약을 선언한 데는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5년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농업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신감이 배경이 됐다.

전남도는 13일 오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박준영 지사 등 도내 친환경농업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농 원년 선포식'을 갖고 유기농 육성을 골자로 한 '생명식품산업 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시작한 '생명식품산업육성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젠 저농약과 무농약 중심의 친환경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공식 표명한 것이다.

전남도는 5년동안 친환경농업을 전남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업=전남'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2004년 경지면적의 1.3%(4천57ha)에 불과했던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을 25.8배인 34%(10만4천825ha)로 끌어 올려 전국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의 52%를 차지하게 했다.

양적인 면에서는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만큼 이젠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 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구상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5년동안 전남 전체 경지면적(31만1천ha)의 45%(14만ha)를 유기농산물 공급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현재 전남 경지면적의 3%(2천721ha)에 불과한 유기농산물 재배 농경지 면적은 오는 2014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15% 수준인 4만7천ha로 확대되고 무농약 농산물 재배 농경지 면적도 30%인 9만3천ha(2009년 4만101ha)까지 늘어난다.

동시에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2014년까지 30% 감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지로서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유기농 효과를 경제적 가치만 4조원, 파급효과 2조6천억원, 브랜드가치 1조3천억원, 농약절감 600억원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유발 효과도 1만8천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가격을 낮출 경우 농민들의 소득 감소를 어떻게 절충하느냐는 데 있다.

전남도는 규모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축산 부산물을 퇴비화해 농업에 활용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집적화하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유기농 시장 규모는 매년 40%이상 커지고 있다"며 "유기농 육성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전남을 세계 최고의 유기농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눈 치우는 31사단 장병들 전남 서해안에 대설특보가 내린 13일 오전 육군 제31사단 소속 장병들이 영광군 영광읍에서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영광읍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24㎝의 눈이 쌓였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에 최대 7㎝의 눈이 더 내리겠으며, 추위는 15일 낮부터 점차 풀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원형지 공급, 광주·전남엔 효과없어

〈原型地〉

혁신도시 땅값 세종시보다 비싸고 입지도 불리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특혜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전국의 혁신·기업도시,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원형지 공급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광주·전남지역은 원형지로 공급할 만한 땅이 적은데다, 원형지로 공급하더라도 가격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13일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원형지로 공급되더라도 세종시와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주 혁신도시의 조성원가는 3.3㎡당 149만원으로 상하수도 등 이미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돼 원형지로 환산하기가 쉽지않다는 것이다. 굳이 환산한다면 토지매입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혁신도시의 토지매입가는 3.3㎡당 40~45만원으로 세종시의 36~40만원보다 높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진데다 입지를 감안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또 원형지 공급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선 이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장이 들어설 경우 이전기관들의 반발도 불가피해 자칫 혁신도시 준공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다.

반면 무안기업도시와 J프로젝트 예정부지인 영암·해남 간척지는 토지매입가가 낮아 정부가 원형지로 공급할 경우 가격면에서 세종시에 경쟁력을 갖출수 있다.

무안기업도시의 토지매입가는 농지가 3.3㎡당 6~7만원, 축사가 12만원선이고 J프로젝트 예정부지인 간척지는 3.3㎡당 2만9천원선이다. 하지만 무안기업도시는 토지매입가에 조성을 위한 일부 부대비용을 합쳐 원형지로 가격을 산출하면 세종시의 절반 수준으로 입지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전남도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J프로젝트 간척지의 조성원가도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장필수 기자 bungy@kwangju.co.k

전라도를 사랑한 린튼 목사 잠들다

농촌 부흥운동 앞장 호남신학교 설립도

전라도의 농촌과 농민을 사랑한 선교사 '드와이트 린튼(한국명 인도아)' 목사가 지난 11일 향년 82세로 미국 애틀란타에서 별세했다.

린튼 목사가 자택에서 부인 마조리 여사와 함께 한 생전의 모습.

미국의 대표적인 선교사 집안이자 한국에서 4대에 걸쳐 봉사와 선교활동을 해온 린튼 가문의 어른으로 꼽히는 드와이트 린튼 목사는 11일 밤 애틀란타에서 지인의 장례식 참석 뒤,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린튼 목사는 구한말 근대 교육과 의료 선교를 펼쳤던 유진 벨 선교사(1868~1925년)의 외손자로 1927년 전주에서 출생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마친 뒤, 1952년 한국으로 되돌아온 그는 25년간 의료봉사와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1973년부터 1978년까지 호남신학교(호남신학대 전신)를 설립, 학장을 지냈다.

그는 특히 형인 휴 린튼(한국명 인휴)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농촌부흥운동과 교회 개척 운동에 힘썼다. 그는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 고흥군 점암면과 광양군 진상면 등에서 간척지 개간사업을 벌여 농민들에게 농지를 제공했다. 또한 미국에서 배워 온 양돈 기술, 비육우 사업, 과수원 재배 등의 축산 영농기술도 농민들에게 전수했다.

교회 개척에도 심혈을 기울여 광주·전남에서 35개 정도의 교회를 설립했다.

대학시절 그의 설교를 들었던 차종순 호남신학대 총장은 "한국말이 너무나 유창했으며, 항상 따뜻한 성품으로 가난한 농촌을 걱정했다"면서 "평생을 한국 농촌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한 어른이다"고 회고 했다. 차 총장은 13일 린튼 목사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윌리엄 린튼(유진 벨 사위)'목사로 한국 독립을 후원하는 한편 대전 한남대를 설립했다.

또한 형의 큰 아들인 조카 스티브(59·한국명 인세반)는 1994년 유진벨재단을 설립해 대북의료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아래 존(50·한국명 인요한)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중 인요한은 자신의 어머니 베티 여사(한국면 인애자)와 함께 순천 기독진료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했으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19 긴급구조 차량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아이티 7.0 강진 교민 7명 연락두절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3일 "아이티를 강타한 7.0 규모의 강진으로 붕괴한 카리브호텔에 현지에 출장갔던 강모(59)씨 등 4명이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호텔 붕괴 당시 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지만 이들에 대한 연락이 두절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5면〉

이들은 서울에 있는 'I' 봉제업체 대표 강씨와 정모(37)씨,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42)씨 등 3명과 현지에서 합류한 통역원이며 강씨 등은 사업상 업무차 12일 오전(현지시각) 아이티에 입국해 카리브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진 발생 30분 전까지 강 사장과 통화했다"면서 "강 사장이 '조금 이따가 미팅이 있어서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통화를 끝낸 이후로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이티 현지에는 교민을 비롯해 모두 70명의 한국인이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지 영사협력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번 강진으로 오후 4시30분 현재 모두 7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